



16면 전면에 중동 소식과 분석, 팔레스타인 현지인의 목소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내 쟁점이 실려 있습니다.

테러 국가 이스라엘 반대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팔레스타인에

승리를



※ 다음 주부터 종이 신문은 매주 수요일에 발행됩니다.

가자 지구는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살인적인 공세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였고, 더 높일 태세가 돼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과 세계의 지지자들은 패배하지 않았다고 **소피 스콰이어**는 지적한다.

대규모 학살, 주거 지역 초토화, 원주민들을 거주지에서 쫓아내고 굶주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 초, 유엔은 지난 2주 동안 가자 지구 인구의 거의 3분의 2 수준인 140만 명이 살던 집을 떠났다고 했다.

가자 주민들이 피난을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살해 위협을 피하거나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파괴했기 때문 둘 중 하나다.

가자 지구의 많은 지역들이 미국이 공격했던 이라크의 모술이나 팔루자, 또는 러시아가 공격했던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의 모습과 흡사한 처참한 폐허가 됐다.

이것은 감히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제국주의가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펼치는 것이지만,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가자의 보건기구에 따르면 10월 8일 이스라엘의 맹습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의 로켓, 폭탄, 박격포와 포탄으로 5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폐허가 된 가자 지구를 떠나지 않는 팔레스타인인들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5087명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2000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죽어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해요.” 가자 중심부 데이르알발라에 사는 이빗삼의 말이다.

“끊임없는 불시 공격으로 수백 명이 순교자가 되고 이 중 상당수가 어린이들과 여성들이에요.

“주거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켓이 떨어지기 전에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어요. 봄비는 장소들이 표적이 되고 있어요.

사진 출처: Wissam Nassar

“우리는 12일 동안 전기도 없고, 깨끗한 식수도 없이 고통받고 있어요. 연료가 부족하다는 건 빵집들이 빵을 만들기를 멈췄다는 것을 뜻해요.”

이스라엘군은 난민촌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이 난민촌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최근 공습 전부터 끔찍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다.

이스라엘이 알샤티 난민촌에 공습을 퍼부어 1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되었다.

해변 캠프로도 알려져 있는 이 난민촌은 심각하게 인구 밀집도가 높고 단 하나의 보건소와 식량배급소가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의 폭탄은 알부레이지 난민촌에서도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육했다. 심지어 그 공격이 있기 전에도, 난민촌 내 물 90퍼센트 이상이 식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했다.

북부 가자 지구를 떠난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다. 지난 10월 22~23일 밤샘 폭격이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군이 인정한 320번의 공습 중 상당수는 남부 가자 지구에서 벌어졌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지상전에서 표적이 되고 싶지 않으면 가라고 한 곳이다.

이스라엘군은 그들이 “제한된 돌격”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미 가자 지구에서 시작했다.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정착자들이 폭력의 수위를 높인다

소피 스콰이어

서안 지구의 자선 단체 활동가 마야르 데르바시 씨는 이스라엘군이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 지상군 침공을 준비하는 동안, 이스라엘 군인과 정착자들은 점령된 서안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잔혹한 짓을 더 심하게 벌이고 있다.

서안 지구 헤브론의 자선 단체 활동가 마야르 데르바시 씨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가자 지구에서는 끔찍하고 야만적인 공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안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에 의해 붙잡혀 가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10월 7일 이전에 이스라엘은 팔레

스타인인 약 5600명을 구금했습니다.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수는 2배가 돼,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통이 멈춰 많은 사람들이 출근이나 통학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마야르는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는 자들은 이스라엘군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악착같이 몰아내려는 정착자들도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일요일 이스라엘 정착자들은 서안 지구 쿠스라 마을에서 장례 행렬에 참석한 아흐메드 와디와 그의 부친 이브라힘을 살해했다. 유가족들은 이스라엘 정착자들이 와디 가족이 소유한 땅을 원했으며,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살해할 태세였다고 전했다. 또, 그 정착자들은 살

인을 자축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리고 공유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군인과 정착자들은 팔레스타인 저항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10월 7일 이후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81명을 죽였다. 이 중 적어도 13명은 툴카렌 근처의 누르 샴스 난민촌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인종 청소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침묵에 대한 분노가 10월 17일 화요일 라말라 중심가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흐무드 압바스의 사임을 요구했다.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군은 최루탄과 연막탄으로 시위대를 공격했다. 제너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보안군이 라잔 나스랄라라는 12살 여아를 살해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들은 이

스라엘 국가에 협조하면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작은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항상 기대해 왔다. 1993년 오슬로 협정에 따라 결성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1967년부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서안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인 자치권을 얻었다.

그러나 이 자치권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군은 2021년에 역사적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역사적 파업과 시위에 참여한 주요 활동가들을 체포했다.

마야르는 팔레스타인과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이 항의하며 들고일어나면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우리의 목소리와 주장, 변함없는 지지가 사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지상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여러분은 가자 지구를 멀리서 보고 있지만, 곧 가자를 내부에서 보게 될 것이다. 명령은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참상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결연한 반격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저항 때문에 서방 지도자들의 일부는 자신들이 지원하는 이스라엘군이 끔찍한 패배를 맞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서방 지도자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프랑스 대통령이 때때로 이스라엘 정부에게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살육이 시작되면 그들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국 리시 수낙의 보수당과 키어 스타머의 노동당도 이 학살을 지지하는 최전선에 설 것이다.

출처 Sophie Squire, 'Gaza sends message of Palestinian Resistance' (2023. 10. 24) / 번역 김샘

“자유로움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죽은 자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집단적인 목소리만이 가자 지구에 떠도는 영혼들에게 ‘사람들이 당신들의 투쟁에 공감한다’고 전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에 나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희망을 주고 변화를 이끌 수 있어요. 함께라면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목소리이자 대량 학살을 멈추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출처 Sophie Squire, 'Palestinian voice: Israeli forces and settlers unleash repression in West Bank' (2023. 10. 20) / 번역 김샘



지금은 세계적 인티파다를 일으켜야 할 때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류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은 순식간에 세계적 운동으로 성장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나라 전체를 휩쓸고 있다. 정부가 시위 참가를 공식 호소한 나라도 몇몇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지원해 온 서방에 친화적인 아랍 정권들은 자신들을 공공연히 비판하는 시위대를 공격하고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다.

서방의 친이스라엘 정부들도 시위를 공격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등 운동의 성장을 가로막으려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공식적으로 금지해 왔는데, 지난 주말 처음 허가된 파리의 집회에는 3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에 앞서 리옹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독일 정부는 ‘유대인 혐오’를 핑계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금지하고 곳곳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했다. 그럼에도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등지에서 팔레스타인

에 연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영국 내무장관 수엘라 브래버먼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혐오 표현’으로 분류해 처벌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지만, 지난 주말 런던에서 30만 명이 모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는 이런 시도를 무력화했다.

미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국가에 반대하는 유대인 단체 등이 워싱턴의 의회 부속 건물을 점거한 데 이어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는 3만여 명이,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1만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서방은 하마스와 나머지 팔레스타인인들을 분리시키려 하지만,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라말라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하마스의 저항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압바스 수반이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런 항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을 보내 시위대를 공격했다. 나블루스, 투바스, 제닌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벌어졌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 아시아에서도 아랍인과 비아랍인이 함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인도, 파키스탄, 브라

질, 남아공 등 세계 모든 대륙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심지어 유명 휴양지로 알려진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서도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다. 몰디브의 총 인구는 겨우 50만 명이 조금 넘는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발이 어찌나 광범한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조차 하마스의 공격이 “진공상태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라며 이스라엘 측의 책임도 물었다. 그는 “팔레스타인인들은 56년 동안 숨 막히는 점령에 시달려 왔다” 하고 덧붙였다.

이 분노의 폭발은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뿐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국 지배자들에 대해 느끼는 분노의 깊이를 보여 준다.

사람들은 한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지배계급이 있고 다른 한편에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포함해 수백만 명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하는 것을 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분노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제국주의, 그리고 친제국주의 정책을 벌이는 각국 지배자들을 향한 더 강력한 항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호중

이집트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이스라엘과 자국 정부 모두 규탄하다

찰리 김버

10월 20일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분출했다. 시위대 수천 명이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일부 시위대가 자국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를 규탄했다는 점이다.

카이로에서 활동하는 한 혁명가는 이렇게 전했다. “두 개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반정부 세력이 포함된 시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관제 시위였는데, 그 시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시나이 반도의 사막으로 내몰지 말라는 엘시시의 요구를 지지하는 시위였습니다.[시나이 반도는 가자 지구와 맞닿아 있는 이집트 영토다.]

“반정부 측 집회는 2011년 이집트 혁명의 역사적 중심지였던 타흐리르 광장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두 시위의 주된 차이점은 정권을 향한 구호의 어조였습니다. 한 시위는 정부의 부름에 화답하고 엘시시의 요구를 칭송하는 시위였습니다.

“다른 한 시위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위였죠. 이 시위는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국경을 개방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점령에 맞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권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하마스를 응원하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반정부 측] 시위대는 자신들의 시위야말로 진정한 시위이며 엘시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엘시시 비판 시위가 친정부 시위보다 규모가 작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흐리르 광장에서 1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시위였던 만큼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팔레스타인은 이집트 통치자들에 맞서는 데서 자주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는 제국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징집된 경찰로 가득 찬 트럭 안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상징적인 순간이 있었다. 보통은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이들이 카이로의 알아즈하르 대



카이로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

학 인근을 행진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지지를 보내는 소리였다. 트럭 밖에서 시위대는 “가자, 가자, 영광의 상징”이라고 외쳤다.

포트사이드와 알렉산드리아, 가자 지구로 통하는 라파 검문소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이집트 정부는 라파 검문소를 봉쇄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과 너무 많은 합의를 해 왔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편인 양 행세를 해야 하는 처지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반대가 커질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마지못해 몇몇 시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게 해 파국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분노가 국가가 허용한 한계를 뛰어넘거나, 엘시시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아무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일이 틀어질 수 있다.

이집트의 혁명적 단체 ‘혁명적사회주의자들’(RS)은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엘시시는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했다.

이집트인들을 억압하고 가난하게 만들어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 왔던 엘시시의 정책들 때문이다. 엘시시는 권좌에 있는 내내 가자 지구 봉쇄에 협력해 왔으면서, 팔레스타인 점령이라는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피하고 싶어 한다.”

타흐리르 광장

엘시시의 위기는 더 깊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10월 20일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가자 지구에서의 학살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더는 “가자 지구의 생활 조건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갈란트는 이번 분쟁으로 “새로운 안보 현실”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 계획대로라면 이집트가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떠맡게 될 것이다. 엘시시가 기겁할 일이다.

한편, 예멘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거리를 가득 메웠다. 한 보도에 따르면 시위참가자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 150만 명이라는 보도도 있다.

요르단에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패

로는 요르단 정권에도 반대하는 시위가 일주일 내내 격렬하게 벌어졌다.

요르단 시위 진압 경찰은 10월 18일 수도 암만의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서 시위대 수천 명을 밀어냈다. 시위대는 “아랍 땅에 시온주의 대사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외쳤다.

요르단의 시위대는 이스라엘 대사 추방, 1994년 요르단-이스라엘 평화조약 폐기, 2016년 이스라엘산 천연가스 구매 계약 폐기를 요구했다.

이집트·요르단 등지를 휩쓸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분노를 자극하고 있는 전투적 시위들은 이스라엘과 서방에게 악몽과도 같은 일이다.

영국 보수당은 이스라엘의 서방 친구들을 지원하려 애쓰고 있다.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은 이번 주 이스라엘을 방문한 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영국 외무장관 제임스 클레벌리는 이번 주 이집트와 카타르를 방문했고 튀르키예로 갈 예정이다.

독재자들을 연이어 만나는 이런 순방은 중동 사람들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영국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출처 Charlie Kimber, “Egyptian protests target Israel—and their own regime”, (2023. 10. 20) / 번역 박이랑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스라엘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원하는 바이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살 때문에 중동 지역과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서방의 장악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지적한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향해 돌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 같은 서방 지도자들의 어조도 똑같다. 영국 총리 리시 수낙도 “우리는 당신들[이스라엘]이 이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승리”란 무엇을 뜻하는가? 하마스를 궤멸시키겠다는 얘기가 많다. 이는 식민 지배 국가가 식민지 반란을 진압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는 전형적인 얘기다. 그러나 그들은 대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하마스가 좋은 싫든 엄연한 사실은 하마스가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것이 하마스가 가진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는 2007년부터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 지구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2006년에 열린 지난 팔레스타인 선거에서도 하마스가 이겼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선거 결과는 이스라엘과 서방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기에 즉시 취소됐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궤멸시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팔레스타인인들이 겪는 억압은 새로운 저항 운동을 낳을 것이다.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굴복시켜야만 존속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끝없는 전쟁뿐이다. 아니면 팔레스타인인들을 절멸시키거나 모두 추방해 버려야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 왜 많은 이스라엘 정치인이 집단 학살을 부추기는 연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르몽드>가 말한 “이스라엘 극우의 환상”을 자극한다. “바로 ‘대대적 강제 이주’라는 환상 말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을 ‘대(大) 이스라엘’에서 요르단과 이집트로 쫓아내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꿈이지만, 놀랄 만큼 빠르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시온주의 정착민들은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을 감행하자 서안 지구의 베두인 유목민들을 요르단으로 쫓아냈



현재 바이든의 정책은 네타냐후를 그야말로 꽁 쥔다는 것이다.

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까지 쫓겨난 베두인 유목민은 545명에 이른다.

이는 이스라엘군의 지원 속에서 수년 동안 진행되던 과정이 더 가속된 것이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집트 국경 너머 시나이 사막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

이집트의 군사 독재 정권은 국경을 열라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촉구에 응하

지 않고 있다. 가자 사람들의 대규모 추방은 서방에 가장 고분고분한 아랍 정권들도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스라엘 국방 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완료되면 가자가 물리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가자에서는 저항이 재건돼 끝없는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바이든의 정책은 네타냐후를 그야말로 꽁 쥔다는 것이었다. 바이든은 지지의 의미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중동 일대에 두 항모 전단을 보내고, 이스라엘군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했다.

여기에는 여러 목적이 있다. 이런 지원을 통해 바이든은 극우 네타냐후 정부가 전쟁을 키우는 것을 자제시키려 한다. 또, 이런 지원은 하마스의 주요 동맹 세력인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권에게 ‘개입 말라’고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

추측컨대 전쟁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연루되는 것으로 — 역재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헤즈볼라와 이란은 나폴레옹의 것으로 여겨지는 격언, 즉 “적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실수할 때는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는 격언을 따를 공산이 크다.

바이든의 문제는 단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다. 이를 위해 그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대리전에 대한 지원을 전용하고 악화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맞서 유력한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이전에도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불법 점령과 민간인·인프라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해 그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매우 어리석게도 바이든과 그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이제 두 전쟁을 연결 짓고 있다. 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하마스가 “이웃 나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바이든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이 네타냐후에게 보내는 확고한 지지가 커다란 반발을 낳고 있다고 보도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G7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빈국들을 얻기 위한 전투에서 확실하게 패배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 캘리니코스]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기울인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 그들은 앞으로 다시는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 장악력을 더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출처 Alex Callinicos, 'Biden backs Israel in an unwinnable war' (2023. 10. 23) / 번역 이원웅

레바논에서 물리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들도 물리칠 수 있다

사이먼 아사프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던 2006년 당시 <소셜리스트 워커> 신문의 베이루트 특파원이었다. 아사프는 당시 이스라엘의 침공을 물리친 전술을 떠올리며 대중 저항이 여전히 승리의 핵심 요인이라 말한다.

이스라엘군 지도자 가디 아이젠코트는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 전략을 수립한 자다.

그는 “민간인 공격”을 전쟁의 핵심 원리로 삼았다.

그가 세운 전쟁 계획을 “다히야 독트린”이라 불렀다. “다히야”는 베이루트의 가난한 남쪽 마을의 이름이다.

시아파 무슬림이 다수 거주하는 이 지역은 레바논 저항 조직 헤즈볼라가 기반을 둔 곳이기도 했다.

다히야 독트린의 내용은 단순하다. 이스라엘 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많은 민간인을 죽이고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이젠코트는 일단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면 그들이 저항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아이젠코트는 이렇게 말했다. 다히야 마을에 퍼부은 것과 같은 대대적 공습이 “이스라엘 쪽으로 총을 쏜 모든 마을에서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압도적인 힘을 행사하고 무지막지한 손상과 파괴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민간인 거주지와 마을은 — 아사프] 군사 기지와 다를 바



2006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에 기뻐하는 사람들

없다.

“이는 제안이 아니다. 이미 승인받은 전쟁 계획이다.”

기회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은 아이젠코트의 군사 교리를 펼쳐 보일 첫 기회였다. 참혹한 파괴가 이어졌다.

이스라엘 군대는 주택뿐 아니라 베

카 계곡의 우유 가공 공장도 타격했다. 이 곳은 전장에서 한참 떨어진 농경지였다.

그들은 또한 다리와 베이루트 공항 등 핵심 기반 시설들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의 무장 헬리콥터는 레바논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베이루트의 역사 유적인 등대에 총을 쏘고, 레바논 북쪽 지역의 기독교인 거주 지역인 비블로스의 오래된 라디오 안테

나를 공격하기도 했다.

다히야 독트린은 악의적이고 잔인했다. 그러나 그 야만성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레바논인들이 겁먹기는커녕 유례없는 규모의 거대한 대중 운동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협했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남쪽 지역을 가차없이 공습했지만 저항 운동을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저항은 더욱 거세지

중동 전역에서 새로 대중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과 오늘날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벌이는 전쟁 사이에는 여러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핵심적 차이도 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살던 곳을 떠날 수 없다. 가자에는 안전한 피난처로 삼을 곳이 없다. 이스라엘은 학교, 이슬람 사원, 병원, 교회 모두 “정당한 공격 대상”으로 간주한다.

가자 지구에서 아이젠코트의 “사람들을 해치우는” 전략은 온전한 형태로 실행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정권이 통제하는 라파흐 국경에 막혀 있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의 무시무시한 군사력에 막혀 갇힌 신세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가진 문제들은 여전히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지상군 투입 계획의 목적은 팔레스타인인 인종 청소의 또 다른 단계를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이 매우 큰 도박이다.

팔레스타인 저항군의 무기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뒤쳐져 있지만, 그들은 참호를 파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랍 대중의 반응이

다. 2006년에는 중동 전역에서 대중적 혁명 물결이 일어날 것이란 주장이 그저 몽상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이런 상황은 바뀌었다.

차이

아랍 정권들이 그토록 억누르려 애써온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최근 몇 주 만에 되살아났다.

서방의 핵심 동맹국인 요르단에서 벌어진 시위는 요르단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집트에서도 대중적 항위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압델 파타 엘시시가 권력을 잡은 2013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만만찮은 거리 행동이었다.

또 다른 핵심적 차이는 이번 전쟁이 미국 제국주의의 연이은 패배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오만한 이라크 점령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에게 당한 치욕은 서방의 “테러와의 전쟁”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미국의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을 중국이 잠식해 들어가는 상황도 미국 제국

고 확산됐다.

시아파 거주 지역 주민들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의 다수는 기독교인들의 구역과 마을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었다.

저항 투사들은 깊은 터널과 병커를 이용해 매복했다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지상군을 습격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과 다히야 독트린은 이스라엘의 핵심 약점을 드러냈다. 바로 이들이 지상 전투를 한 사코 피하러 한다는 점이었다.

저항군과 정면으로 맞붙을 때면 이스라엘군은 패배했다. 예를 들어, 레바논 남쪽 국경의 작은 마을 아이타 알샤브의 외곽에서 벌어진 한 전투에서는 헤즈볼라와 공산당원들을 포함한 저항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

마을을 점수하려다 이스라엘 군인 50명이 사망했다. 반면 저항군은 11명의 전사자를 냈을 뿐이다.

이스라엘은 2006년 전쟁이 1982년 레바논 침공처럼 풀리기를 바랐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공습에 이어 지상군을 투입시켜 베이루트 근처까지 진군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들의 동맹군은 몇 달 동안 포위된 채 항전하다 결국 항복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침공은 사브라와 샤틀라 난민촌에서 벌어진 학살로 절정에 달했다.

주의의 약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예를 들어, 미국 바이든 정부는 최근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평화 협정을 체결한 것에 깜짝 놀랐다.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보여 주는 다른 징후도 있다.

가자 지구 폭격이 진행되는 사이, 이집트와 요르단 정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초청을 철회해, 아랍 동맹국들을 순회하려던 바이든의 일정을 단축시켜 버렸다.

이는 아랍 독재자들이 미국 정부의

무기를 내려 놓은 자들까지 무자비하게 살해한 이 학살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이후 20년 동안 레바논 남부를 점령 지배했다.

그러나 그 점령은 결국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다.

게릴라

헤즈볼라를 중심으로 뭉친 저항 세력은 이스라엘의 점령 지배에 맞서 효과적인 저항도 게릴라 공격을 펼쳤다.

그러나 점령을 결국 무너뜨린 것은 대중 운동이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통제 구역 바로 바깥의 한 마을을 침범하자 레바논 학생들이 휴업을 벌였다. 이후 작은 시위가 대규모 행동으로 발전하고 시위대가 레바논 남쪽 국경으로 행진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동맹군을 내버려둔 채 도망쳤고, 그 사이 학생들은 점령당한 마을을 다시 점수했다. 이 후퇴로 인해 이스라엘이 1982년에 거둔 승리는 물거품이 됐다.

2006년 이스라엘은 또다시 레바논 저항군을 분쇄하려다가 무장 저항과 대중 반란의 결합에 직면했다.

이러한 대중 운동과 무장 저항의 결합을 이스라엘은 이겨낼 수 없었다.

분노보다 거리의 시위대를 더 두려워했음을 보여 준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강점을 상쇄하기 위해 대중 운동이 필요했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중동 전역에서 벌어지는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운동들이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벌어진 운동들은 2011년 혁명들의 교훈으로 무장해 있다.

출처 Simon Assaf, “We beat the Israelis in Lebanon. The Palestinians can win too” (2023. 10. 24) / 번역 이예송

이스라엘의 체계적 거짓말은 폭력으로 얼룩진 탄생 때부터 시작됐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벌인 잔혹 행위를 은폐한 거짓말로 점철돼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할 때마다 이를 정당화하는 거짓말을 재빠르게 내뱉어 왔다. 이스라엘의 상투적인 첫 대응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2022년 5월 이스라엘의 한 저격수가 저널리스트 시린 아부 아클레를 사살했다.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 예난을 습격하던 중 벌인 일이었다.

총탄은 그녀의 헬멧 아래, 그리고 그녀가 기자임을 밝히는 방탄조끼 위를 맞혔다. 고도의 조준 사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는 팔레스타인 측 오발로 그녀가 사망했다고 몰아가려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은 재빠르게 사진을 배포했는데 한 팔레스타인 투사가 어떤 군인을 사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었다. 마치 그가 아부 아클레를 쏘기라도 한 것인 양 말이다.

아부 아클레 살해로 광범한 분노가 일자 이스라엘은 후퇴해야 했다. 2022년 9월 이스라엘 군은 아부 아클레가 자신들의 총격에 “불운하게 맞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범죄로 보거나 수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기자 살해는, 이스라엘이 사람을 대거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만은 아니다. 2006년 6월 이스라엘 측은 가자 지구 해안에서 민간인 7명을 폭사시켰는데 그중 셋은 어린이였다. 이스라엘 군은 재빨리 위원회를 꾸려서 해안 참사를 조사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모든 책임에서 자신을 면제시켰다.

1982년 레바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샤틀라 난민 캠프는 수도 베이루트 인근 사브라 지역 바로 옆에 있었다. 1982년 9월 16~18일에 레바논 극우 병력은 이스라엘 군과 함께 팔레스타인 난민과 레바논 민간인 2000명을 살해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그 살인 행위를 용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엔 진실이 드러났다. 그

럼에도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그에 가담한 살인자나 당국자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후 이스라엘 측 조사 결과는 살육의 직접적 책임이 이스라엘의 동맹이었던 레바논 민병대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조사조차 이스라엘 국방장관 아리엘 샤론에게는 “유혈 학살과 보복이 자행될 위험을 무시한 개인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샤론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2001년에 총리로 선출됐다.

이스라엘의 솔한 거짓말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커다란 거짓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이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땅 위에 건국됐다는 허구 말이다.

진실은 1948년의 “나크바”(‘대재앙’이라는 뜻) 동안 폭력과 잔혹 행위로 팔레스타인인 100만 명을 겁박해 쫓아냈다는 것이다.

이런 진실은 은폐돼야만 했다. 2009년 이스라엘 교육부는 ‘나크바’라는 단어를 팔레스타인 어린이용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2011년에 이스라엘 의회는 어떤 기관도 나크바를 기리는 행사를 일체 할 수 없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 법에서는 나크바를 기리는 모든 행사를 인종차별, 폭력, 테러 조장 행위와 같다고 간주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나크바의 진실을 드러내려 하는 것을 극단적인 위협이라고 여긴다.

1948년에서 배울 교훈은 거짓말도 반복되고 충분히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거짓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리엘 칼너는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같은 리쿠드당 소속 의원인데 하마스 공격 이후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올렸다. “지금의 목표는 하나다. 바로 나크바!

“새 나크바는 1948년 나크바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가 돼야 한다. 가자 지구를 상대로 한 나크바, 그리고 누구든 가세하려는 자들을 상대로 한 나크바!”

그리고 이 제2의 나크바가, 첫째 나크바와 마찬가지로 온갖 거짓말로 뒤덮여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다.

다라 커미스키

출처 Dáire Cumiskey, ‘Israeli state’s lie machine rooted in its violent birth’ (2023.10.24) / 번역 김종환

팔레스타인 저항 정당하다

이스라엘의 잔혹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가자 지구는 지금 보복성 폭격을 당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무참히 살해당하고 있다. 최근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폭력적인 인종차별 국가라는 것이 새삼 드러나고 있다. 이스라엘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억압에 맞서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양쪽 모두 폭력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억압자 편에 서는 것이라고 **닉 클라크**가 설명한다. 이 기사는 2021년 5월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할 때 쓰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가하는 폭력성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 두 발언이 있다. 첫째는 팔레스타인 주거 지역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이 외친 구호, “아랍인에게 죽음을”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인들의 살인적 혐오를 보여 준다. 이스라엘인들은 70여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을 고향에서 내쫓고 있다.

둘째 발언은 이스라엘 국방장관 베니 간츠가 가자 지구의 무장저항 단체를 향해 한 말이다. “이스라엘은 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쥐 죽은 듯 고요해진 뒤에야 상황을 진정시키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저항을 단념하지 않는 한, 폭격으로 침묵을 강요하며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양쪽 모두 폭력을 중단하라”면서 이스라엘에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편에 서고 있다. 즉, 팔레스타인인들이 저항할 권리를 부정하고, 저항에 나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폭격할 권리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정당방위” 주장은 폭력이 어디서 비롯하는지 못 본 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아랍인을 적대하는 인종차별과 폭력 위에 세워졌고, 아랍인들을 율타리에 갇힌 소수민족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중동에서 미국의 뜻을 관철시키는 임무와 떼려야 뗄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고도로 군사화돼 있다.

폭력이 일상인 상황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경계 안쪽에 사는 팔레스타

인인들은 차별과 가난 속에 살고 이스라엘 민간인과 경찰의 괴롭힘에 시달린다.

가자 지구에서는 청년 팔레스타인인들이 성장기 내내 이스라엘의 봉쇄를 경험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14년 동안 공중 폭격을 수없이 했고 파괴적인 전쟁을 세 차례 일으켰다. 그리고 최근의 공격은 그 넷째가 될 듯하다.

동예루살렘과 서안 지구에서는 팔레



“아랍인들을 가스실라” 시온주의 정착민이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 집에 칠한 혐오 낙서

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억압적인 군사 통치하에 살고 있다. 군인들이 각종 검문소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집을 습격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는 정착민들을 비호했다.

팔레스타인 학자이자 활동가인 마크 무한나드 아이샤는 폭력 위협이 일상인 상태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지를 지난주 <알자지라> 기사에서 설명했다.

“우리는 무장한 이스라엘 시민들을 늘 마주쳤다. 그들은 총을 드러내 보이면서 홍보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우월성을 각인시키고, 거슬리게 쳐다보면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고 상기시키려는 것이다.

“어릴 때 아이들끼리 나누던 대화는 이스라엘인들이 쓰는 고문 방식,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폭행당한 친구나 친척 얘기, 무장한 이스라엘 민간인이 어떤 팔레스타인인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얘기, 친척이나 친구가 오랫동안 구금당하고 고통받은 것에 대한 얘기로 흘러갈 때가 많았다.

“확실히 오늘날 상황은 그 시절보다 더 나빠진 듯하다. 그런 날들과 이야기

가 차곡차곡 쌓이고, 거기에 실제로 폭력을 경험하는 각종 사건이 더해지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시적 공포 상태에 있게 만드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역사를 보면, 그런 공포 상태를 견디며 사느니 저항하기로 결심한 팔레스타인인들이 많다. 그들이 저항에 나설 때마다, 그 저항이 어떤 방식인지와는 무관하게, 팔레스타인인들은 잔혹한 탄압에 직면했고 종종 목숨이 위험했다. 따라서 폭력은 정당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사살당하는 상황에서 (2018년 대중 시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들더러 평화롭게 저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시위대에 발포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그보다는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려고 폭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반격에 나서는 것은 그런 억압에 저항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 수단이 돌이든 로켓이든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이아말로 억압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그에 맞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2차 인티파다 사진

무장 투쟁은 영웅적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역사상 팔레스타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해 왔다.

대규모 시위, 반란과 파업을 벌였다. 한편, 이스라엘 군에 패배를 안기려고 영웅적인 무장 투쟁도 벌였다. 그런 무장 투쟁은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그 두 방식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폭력이나 비폭력이라는 아니다. 그리고 두 방식이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예컨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 단체들은 지난주에 로켓을 발사하면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강제 퇴거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로켓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예루살렘 시위가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이스라엘 안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공포였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가자 지구를 향해 살벌한 위협을 내뱉는 모습과, 라물라와 로드에서[이스라엘의 도시] 이스라엘인 폭력배들을 진정시키려고 다급하게 애원하는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가자 지구가 불탈 것”이라고 위협하던 간츠는 같은 날 이런 경고도 했다. “우리 내부의 분열이 우리를 위태롭게 만든다. 가자 지구의 전투는 이기고 본진의 전투는 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인은 가자 지구 주민과 똑같이 하찮은 존재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경찰에게 가혹한 대접을 받았다. 이스라엘 경찰이 그들을 내부의 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자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당황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치인과 장성들은 시위가 반란으로 발전해 팔레스타인 구석구석으로 번질 수 있고, 가라앉히기

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저들은 무장 투쟁을 억제하는 데에는 훨씬 더 자신감이 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무장 저항 단체들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욱이, 무장 저항은 과거 이스라엘에 굴욕적인 패배를 몇 차례 안긴 바 있다.

2006년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무장 저항 조직 헤즈볼라를 분쇄하겠다고 레바논을 침공했다. 몇 주 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게릴라 전사들(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대중적 지지에 뿌리 내리고 있다)에 밀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4년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전면전을 벌이고 팔레스타인인 2251명을 죽였지만, 하마스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기지 못한 채 7주 만에 전쟁을 끝내야 했다.

그러나 무장 투쟁은 이스라엘의 점령이나 인종차별 체제를 종식시킬 상황에 근접한 적이 없다.

무장 저항 단체들이 무장 투쟁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중동의 그 동맹들을 압박해서 협상에 응하고 양보하도록 만드려는 것이다.

그런 투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신을 팔레스타인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려는 것이다. 이런 노선은 투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양보하도록 만든다. 1970년대에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 무장 투쟁을 벌였다. 그들의 계획은 민족 해방 투쟁으로 그 일대 다른 아랍 국가와 비슷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아랍 국가들의 지원에 기댔고, 그 국가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이 자신을 지원해 주기를 바랐다.

▶ 10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 9면에서 이어짐

문제는 그 국가들의 지배자들이 많은 경우 중동을 지배하는 미국, 영국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아랍 지배자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 그러려면 팔레스타인 저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해야 했다.

아랍 지배자들은 때때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유용하다고 봤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을 적으로 돌렸다. 요르단에서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어찌나 강력했는지 국가에 대항하는 권력으로 발전하자, 요르단 정권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대거 학살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점차 이스라엘에게 정당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미니 국가”라는 유혹

그런 변화의 중대한 결과 하나는, 팔레스타인 땅을 온전히 되찾겠다는 목적을 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포기하게 된 것이다. 그 대신 이스라엘과 공존할 “미니 국가”를 약속받자는 유혹에 빠졌다.

1993년에 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국가를 약속받을 “평화 절차”를 택하겠다고 무장 투쟁 포기를 선언했다. 그렇게 선택한 협상으로 그들이 얻은 것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통제였을 뿐이다.

하마스 등의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그런 협정 이후 팔레스타인해방기구를 대신할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그들도 같은 전략을 추구한다.

하마스도 중동의 다른 정권들이나 (예컨대 이란),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 같은 단체들의 지원을 기대했다.

이후 가자 지구 봉쇄가 수년간 이어졌고, 이집트에서는 반혁명이 벌어져 무슬림형제단이 박살났다. 이런 상황에 떠밀려 하마스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이집트 정권과 협상을 했다.

이집트 정권은 가자 지구 봉쇄에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마스는 반격에 나설 때마다 이집트가 자신을 대변해서 개입하고 “중재”하기를 기대한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든, 실제로는 하마스 역시 팔레스타인 “미니 국가”를 보장받는다면 이스라엘과 타협하겠다고 밝혀 왔다.



중동 각국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벌일수록 자국 지배자들과 충돌하게 된다. 2012년 가자 지구에 진입한 이집트 혁명가들

중동의 반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여태껏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같은 무장 단체들이 아니었다. 그 위협은 평범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들고 일어났을 때 제기됐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인티파다다.

1987년에 인티파다를 촉발한 계기는 충격적인 잔혹 행위였다.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 수백 명이 이스라엘에서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잔혹한 살인을 목격했다.

이스라엘 탱크 운반 차량이, 검문소에 줄지어 대기 중이던 노동자들의 차량을 깔아뭉개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당했다.

인근 자발리아 난민 캠프에서는 숨진 3명의 장례식으로 시작된 모임이 1만 명 규모의 시위로 발전했고 시위대는 경찰서로 행진했다. 다음 날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발리아에서 일어난 또 다른 시위를 공격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살인적 폭력을 동원해 일체의 시위를 분쇄하려고 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을 때마다 더 많은 장례식과 더 많은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가자 지구 전체,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전체가 들고일어났다.

시위와 반란은 가자 지구를 넘어 서안 지구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시민들은 점령 지역[가자 지구,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 주민들에 연대하며 총파업에 참여했다.

활동가들의 위원회는 모든 지역, 도시와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항쟁을 조율했다. 이스라엘은 가장 잔혹한 탄압

으로도 반란을 분쇄할 수 없었다.

이후 5년 동안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방도가 없어 보이는 비대칭적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1988년 1월 이스라엘 신문 <예루살렘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가자 지구,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의 거리는 사실상 청년들이 통제하고 있다. 우리의 20세들이 저들의 20세들과 충돌하는 형국이다. 우리 20세들은 중무장하고 헬리콥터와 총을 사용하고, 저들은 몽둥이와 돌맹이, 수제 화염병을 쓴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대에 맞서 돌과 화염병만으로 저항에 나서는 사진들은 이스라엘 점령의 현실을 폭로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가 늘었고, 특히 중동 전역에서 연대가 는 것이 중요했다.

아랍 지배자들은 인티파다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규모 연대 시위를 탄압했는데, 그런 시위가 자신을 향한 반란으로 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알제리에서는 반정부 대중 운동이 인티파다에서 영감을 얻었다. 반정부 지도자들은 시위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단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저 팔레스타인인들처럼 말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자국 정부가 이스라엘, 미국과 맺은 긴밀한 관계를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삼 시간에 발전했다.

이집트 북부 마할라의 대규모 방직 공장의 노동자들은 반란 초기부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동참했다. 이스라

엘에 항의하는 구호들은 이스라엘,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자국에 요구하는 구호들로 발전했다.

미국이 지원하는 중동 정권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한 것은 반란이 팔레스타인 밖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두려움이 결국 이스라엘의 등을 떠밀어 1993년에 팔레스타인해방기구와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했다. 그 평화협정은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저항이 팔레스타인을 넘어 광범한 반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아랍 정권들에게 남아 있다.

다른 아랍 나라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팔레스타인 연대 투쟁이 자국 독재자들에 맞선 투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된다.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 사람들이 카이로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습격하고 새 정부로 하여금 가자 지구와 접한 국경을 개방하도록 강제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요르단, 모로코, 레바논에서도 그런 이유로 연대 시위가 다시금 벌어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 협정을 맺었던 아랍 정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저항을 그만 공격하라고 주문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 정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하기 때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저항이 무엇으로 이어질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요구

더 이상의 살상을 피하자고 하는 주장이겠지만 근시안적 단견이다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가자 지구에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가자 지구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 많이 희생될 것이다. 참혹한 인명 피해에 몸서리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휴전을 촉구한 유엔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휴전이 아니라 “인질이 풀려나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대응할”(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폭격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미국은 10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전투 중단” 결의안에 반대했다. 이사국 15곳 중 12곳이 찬성했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이 불발됐다.(러시아와 영국은 기권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휴전 요구가 이스라엘의 계획에 차질을 줄까 봐 반대한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이렇게 말했다. “하마스와의 전쟁은 한 달, 두 달, 또는 세 달 걸릴 수 있고, 결국 하마스는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도전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확실하게 보여 준다는 것이다. 2001년 9·11 공격을 당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보복”을 공개 천명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만행을 더는 도저히 못 보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투 중단 요구가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휴전 요구는 멀리 내다보는 눈이 결여돼 있다.

그 이유를 알려면 현재 팔레스타인 저항을 둘러싼 세력균형을 봐야 한다.

운동의 전술과 요구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과 세력균형을 고려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밀물 때와 썰물 때를 분간할 줄 모르면 배를 띄울 수 없는 법이다.

10월 7일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 측이 패러글라이더, 모터사이클, 보트를 이



“휴전? 인질이 먼저 풀려나야 한다”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원하는 바이든

용해 자신들을 가뭇던 장벽을 허물고 이스라엘에 빼앗긴 땅을 밟았다. 그 역습에 이스라엘 국가는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맛보고 충격을 받고 전율에 휩싸였다.

회심의 주먹

‘일진’ 학생에게 맨날 괴롭힘을 당하고 얻어터지던 피해 학생이 어느 날 회심의 주먹을 날려 ‘일진’ 학생의 위세에 한 방 먹이고 그동안 그 위세에 눌려 있던 친구들의 속을 후련하게 한 상황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을 공언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지상군 대규모 투입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지구에 진입하면 무장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가전을 벌일 것이고 그리되면 이스라엘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입을 망설이며 지상전을 위한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하마스의 역습으로부터 상처 받은 자존심을 만회하려고 이스라엘은 결국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을 벌일 듯하다. <뉴욕 타임스>는 가자 지구 지상전이 시가전으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력은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시가전(특히,

도시 게릴라전)이 객관적 전력만으로 결판나는 것은 아니다. 시가전이 점령군의 무덤이 된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령 2004년 11월 이라크의 팔루자 전투가 그런 사례다. 팔루자 전투는 이라크 판 ‘뗏(설) 공세’였다. (최근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군사적으로 조언하기 위해 이라크의 팔루자 전투를 지휘한 바 있는 해병대 중장 제임스 글린을 이스라엘에 파견했다.)

가난에 찌든 도시 팔루자에 있던 이라크 전투원들의 무장 정도는 허접한 갱단 수준이었다. 반면 미군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1만 5000여 명을 이 전투에 투입했다.

그러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은 뽁뽁이 들어선 건물과 비좁은 골목길에서 벌어지는 도심 전투에서 찢찢했다. 총알과 로켓탄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고 인파 속에서 누가 적군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웠다.

팔루자 전투에서 미군은 151명이 전사하고 1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이라크인은 2000여 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라크 수렁에 빠지게 됐다.

가자 지구도 세계에서 건물이 가장 밀집한 도시 중 하나이고, 이런 지형은 방어자에게 유리하고 공격자에게 불리하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지상전으로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가자 지구 점령은 말할 것도 없고 하마스 제거도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가자 지구 지상전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네타냐후 정부에 커다란 손실을 안겨 이스라엘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

사태가 이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휴전 요구는 현재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는 것일 것이다.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 측에 무기를 내려놓고 모종의 협상을 받아들이라는 요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도 약화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에 시간을 벌여 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국제 협상”이라는 외교의 밋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 협상”이라는 것은 기실 최후까지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비굴한 협상에 타협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이간시키기 위해 구상된 것이다.

게다가 “국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 지구를 봉쇄하거나 점령할 것이다.

결국 현재의 맥락에서 휴전 요구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낳은 이스라엘의 끔찍한 억압이 지속되는 상황이 유지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다.

김인식

팔레스타인 투쟁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절판)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라시드 할리디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448쪽, 25,000원



재앙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직후 고향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인 난민

예외 국가 이스라엘 — “다운 다운 이스라엘”을 외치는 이유

‘프리 프리(독립하라) 팔레스타인!’
‘다운 다운(타도하라) 이스라엘!’

10월 7일 팔레스타인인들이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한 방 먹이고부터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는 집회가 연거푸 열리고 있다. 흔히 한 쌍으로 외쳐지는 이 구호는 단연 가장 인기 있는 구호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은 너무 특수해서 사실 이례적인 국가다. 이스라엘의 존재와 팔레스타인 해방은 양립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시온주의 정착민들이 깡패처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청소를 벌여 탄생한 식민 국가다.

시온주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에서 벌어진 끔찍한 반(反)유대주의 광풍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절망에서 비롯한 운동이다. 시온주의는 유대인이 박해를 벗어날 방법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만의 배타적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 목표는 이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아야만 실현할 수 있었다. 1948년 시온주의 민병대가 아랍 주민 수백 명을 살해하고 85만 명을 고향에서 내쫓아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그때 이래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서 빼앗은 땅에 살

고 있다. 이스라엘은 태생과 확장이 강탈 국가인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조금이라도 양보한다면,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권리가 문젯거리가 될 것이다. 1987년 1차 인티파다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다비드 레비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갈릴리의 아랍인들 사이에서 소요 사태가 터진다면, 갈릴리 역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도대체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하는가?”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쫓아낸 사람들과 끝없이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매우 군사화된 사회다.

군사화된 사회

제2차세계대전 종전 무렵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유대인 정착민 공동체가 시온주의 군사 조직에 편제돼 있었다. 영미조사위원회가 1946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정착민 공동체의 전체 유대인 59만 명 중 약 12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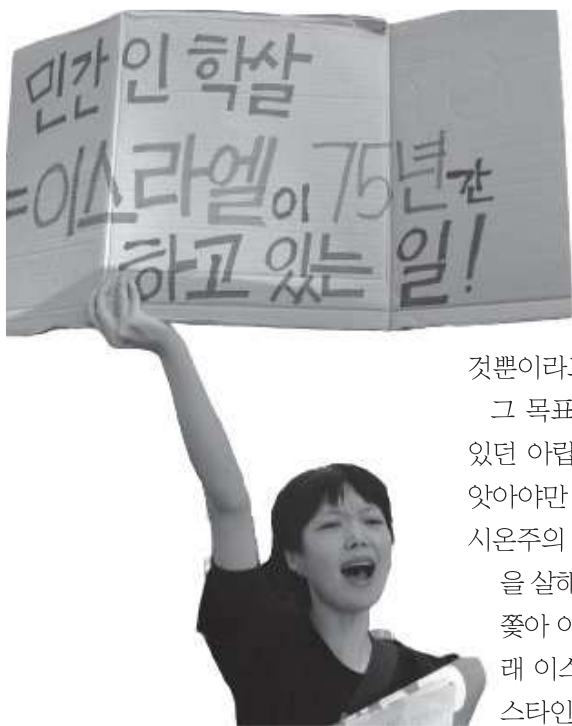
(20퍼센트)이 전투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경·중화기를 모두 다룰 수 있었고 심지어 소형 항공기도 조종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지금도 때로 총기 살해와 방화도 서슴지 않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을 집에서 퇴거시키고 땅을 강탈하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끊임없는 저항을 총칼로 억누르고, 아랍 세계의 반감 속에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려면 서방 제국주의의 지원을 등에 업어야 했다. 그래서 시온주의자들은 중동에서 처음에는 영국 제국주의,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미국 제국주의의 경비견 구실을 자임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아랍인들의 저항을 짓밟는데 앞장섰고, 미국은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막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보답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의 해외 군사 원조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미국이 준 돈은 오늘날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무기 산업과 하이





75년의 저항 10월 20일 서울 이태원역 앞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테크 산업으로 직접 · 간접으로 흘러들어 가고, 이스라엘은 다시 미국과 전 세계에 무기 등을 수출한다.

2022년 기준 이스라엘은 인구 대비 국방비 지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다. 노동인구의 10퍼센트 가까이가 첨단기술 부문에 고용돼 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산업은 전 세계 관련 투자의 약 13퍼센트를 끌어들이고 있다.

리드줄

한편, 점령지에 건설된 정착촌에는 군사 부문뿐 아니라 그곳에 필요한 온갖 서비스업이 성장했다.

거의 모든 투자가 전쟁과 점령,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 · 경제 구조 속에서 유대인 정착민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시온주의 프로젝트에 매여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성격 때문에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었)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여느 나라에서처럼 “이스라엘 노동계급 내에서의 동맹”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없다.

이스라엘은 때때로 미국이 붙잡고 있는 리드줄을 끊고 달려 나갔을 만큼 매우 사나운 경비견이다.

미국은 중동에 있는 아랍 동맹국들을 달래기 위해 ‘두 국가 방안’을 채택했다. 1993년 체결된 오슬로협정은 이스라엘이 빼앗은 땅을 인정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형식적인 작은 국가를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후로도 정착촌 건설을 계속해 왔다. 네타냐후가 극우 시온주의 정당들을 끌어들이며 결성한 이번 정부는 미국의 전략과 배치되는 목표를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얼마 전 네타냐후의 극우 연정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이끈 사람들은 시온주의 프로젝트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놓고 네타냐후와 다투을 뿐이다. 이번 팔레스타인 저항이 시작되자 그들은 네타냐후와 거국 내각을 구성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을 몰아내고 중동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경비견 노릇을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다. 주저없이 ‘다운 다운 이스라엘’을 외쳐야 하는 이유다.

임준형

‘국제 사회’란 무엇이고,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의 학살을 멈추고자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국제 사회’의 외교적 개입을 촉구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절멸되기 전에 제3자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말려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의 발로일 것이다.

그런데 ‘국제 사회’의 중재라는 생각은 언뜻 그럴 듯해 보이지, 사실 그 ‘국제 사회’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따져 볼 일이다.

흔히 ‘국제 사회’는 유엔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하지만 흔히 그랬듯이 이 사태에 관해서도 유엔 개입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즉각 휴전을 촉구했지만 그 말은 무시되고 있다.

실제 힘은 유엔을 좌우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소속 5대 강대국들에 있는데, 이 강대국들의 뜻이 엇갈리면 유엔은 마비되기 십상이다(유엔의 역사에 관해서는 본지 기사 ‘유엔은 왜 침략 전쟁을 막지 못하나?’를 보시오). 지금도 바로 그런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니, 이번 사태에서 ‘국제 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일 테다. 이들 말고는 이스라엘을 말릴 처지에 있는 세력이 없어서다.(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서방 제국주의의 후원을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미국은 사태 발발 직후부터 신속하게 이스라엘에 정치적 · 군사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든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로 날아가 이스라엘의 학살을 비호했다(관련 기사 본지 478호 ‘도살자 네타냐후를 비호하는 바이든’). 미국은 “대응”이 이스라엘의 “의무”라고까지 했다.

미국은 자신의 중동 경비견 이스라엘이 수모를 갚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보전하는 데 득이라고 여긴다.

미국의 서유럽 동맹국들인 영국 · 유럽연합도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편들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휴전을 촉구하지만 — 지난해 마크롱이 우크라이나 휴전 운운했을 때처럼 — 이 구상이 실현되리라는 기대는 본인에게도 없을 것이다.

한편, 이란-사우디 관계 복원을 중재했던 중국이라면 서방 국가들과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게도 우선적 고려 사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커져 가는 역내 이해관계이고, 그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478호 ‘중국-러시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국제 사회 개입’을 촉구하는 것은 강대국들의 합의와 압력만이 학살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절박한 생각 때문일 테다.

그러나 설령 강대국들이 어찌어찌 이스라엘을 설득해 모종의 평화 협정이 맺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기껏해야 막간극일 뿐 이스라엘의 역압을 실제로 멈출 수는 없다.

꼭 30년 전인 1993년 미국의 중재로 ‘두 국가 방안’이 골자인 오슬로협정이 맺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줄곧 팔레스타인을 유린했다. ‘국제 사회’는 실제로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가장 긴 전쟁들이었던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도 ‘국제 사회’의 개입은 아무 구실도 하지 못했다.

전쟁과 점령을 잠시라도 멈춘 진정한 힘은 점령당한 사람들의 불굴의 저항과 국제적 연대 운동에 있었다. 현재 팔레스타인 저항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김준호

하마스의 인질 억류를 비난해야 마땅한가?

10월 7일 하마스는 강탈과 폭격을 일삼아 온 이스라엘에 성공적 반격을 가하며 이스라엘 민간인 200여 명을 잡아갔다.

하마스는 억류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인들을 교환하자고 주장했다. 최근엔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필요한 연료 등 구호 물품과 교환하자고 요구했다.

물론 하마스의 인질 억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는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살상 행위와 납치”를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좌파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고 학살해 온 이스라엘에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옳게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좌파의 일부는 그러면서도 하마스의 민간인 납치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거나 “용인하기 어렵다”고 토를 다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이런 주장에는 억압과 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의 저항은 인도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좌파 저술가 임승수 씨가 지적했듯이, “그 어떤 민족이든지 70여 년 동안 일방적이고 노골적인 인종 청소에 몰입한다면 ...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민플러스》)

팔레스타인인들이 상대하는 이스라엘은 식민 정착자 국가다. 해외에서 이주한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원주민을 내쫓고 그들의 땅을 강탈해 오직 유대인이 배타적 권리를 누리는 국가를 건설했다. 이런 만행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

식민 정착자들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시온주의 프로젝트에 동의해 이스라엘로 이주해 왔다. 팔레스타인인들을 폭력으로 밀어내고 정착촌을 만들어 눌러 앉은 당사자이고, 이스라엘 국가의 성격과 일체화돼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권력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대중은 식민지 농장주의 심리를 갖고 있다.”(존 로즈, 《강탈국가 이스라엘》) 더구나 최근 수년 동안 극우 정부의 부추김 속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의 팔레스타인인 공격이나 정착촌 건설이 더 빈번해졌다.

〈자주시보〉의 지적대로, “팔레스타인 주민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쫓아내고 목숨까지 빼앗는 이스라엘 민간인은 ‘침략자 날강도’로 보일 법하다.”



이스라엘은 수시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고 붙잡아 간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잡아 가둬 왔다. 10월 7일 하마스가 공격할 때 이미 최소 530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중에는 아동 170명도 포함돼 있다.

팔레스타인 아동들은 대부분 ‘돌을 던졌다’는 혐의로 연행되는데, 이것은 최대 20년형을 받는 범죄로 취급된다.

이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체가 대대적인 연행과 구금에 시달려 왔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마을을 급습해 가택을 마구 수색하고, 무차별로 사람들을 폭행하고, 특히 청년들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짓을 벌여 왔다.

포로 교환

이런 모질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들은 이스라엘인을 억류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교환하는 전술을 종종 사용했다.

예컨대 1968년 이스라엘인 여객기 승무원과 승객 12명이 팔레스타인인 37명과 교환됐다. 1985년 이스라엘은 군인 포로 3명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1150명을 풀어 줬다. 2006년 하마스는 이스라엘 길라드 살리트 상병을 붙잡아, 그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027명을 교환할 수 있었다.

기존의 평화 협상이 성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 결과의 일부이다.

지금 하마스의 민간인 인질 억류는 이런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전시에 이

스라엘군의 극악한 침공과 폭격을 막거나, 붙잡혀 간 팔레스타인 동료들을 되찾으려고 포로를 붙잡는 시도를 억압자들의 선제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살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비난의 화살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돌려져야 한다.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보복성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 명을 잡아가, 10월 21일 현재 수감

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제 1만 명이 넘는다(〈알자지라〉). 그중에는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가자 주민 4000여 명과 서안 지구 주민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포로 교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연료 교환도 거부하고 있다. 연료가 바닥나면 가자 지구에서 인명 피해가 더욱 속출할 것이다. 누가 진짜 악당인가?

김영익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필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인필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9 772005 821003 44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들과 분리된 집단인가?

이원웅

10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이든은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을 두둔하면서 팔레스타인인 지지 세력을 이간하려는 말이다.

바이든이 하마스의 대표성을 따지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스라엘과 서방은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하마스가 다수의 지지를 받자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를 사주했다.

하마스는 아이시스(ISIS) 같은 그저 반동적인 테러 집단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속에서 성장하고 뿌리를 내린 정당이다. 하마스는 1993년 오슬로 협정에 반대하고 그 협정을 맺은 기존 팔레스타인 저항 지도부의 타협적 노선을 비판하면서 지지를 받았다.

특히, 하마스는 오슬로 협정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와 환멸 속에서 일어난 2000년 제2차 인티파다에 적극 동참하며 팔레스타인 대중 속에 뿌리내렸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항쟁의 대의를 지지해 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인들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꽤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컨대 팔레스타인 전문가이자 팔레스타인 점령의 현실을 탁월하게 폭로해 온 홍미정 단국대 교수는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



하마스는 저항 속에서 성장하고 뿌리를 내린 세력이다. 하마스 집회에 참가한 팔레스타인인들

고 있다. 대의는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를 지지해 온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저항으로부터 성장한 세력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하마스를 대중과 분리시키는 것은,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표하면서도 현재 비난의 표적이 된 하마스의 군사 작전과는 선을 긋는 것인 듯하다.

그런 관점은 마치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와는 무관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하마스의 군사 행동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직면한 현실의 논리와 필요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갈수록 인종 청소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스라엘 국가와 증대하는 식민 정착자들의 폭력에 직

면해 왔다.

한편, 언론들은 하마스가 그저 정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고 공격을 감행한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협은 실제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물론 이번 기습 공격 자체는 십중팔구 소수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염원과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팔레스타인 정책조사연구소가 지난 9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의 절반 이상(53퍼센트)이 점령을 끝낼 최선의 방법으로 무장 투쟁을 꼽았다. 전투에는 비밀스런 모의가 불가피하다.

또한 이번 기습은 하마스 외에 여러 저항 세력이 함께 가담한 것이기도 하다.

5년 전 포로가 된 이스라엘 군인의

송환을 협상한 바 있고 현재 하마스의 민간인 포로와 연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측 협상가 거슨 배스킨은 10월 11일 ‘BBC 월드 투데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마스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군 기지 두 곳을 공격하고 군인들을 납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 [국경이 뚫려져] 이슬람 지하드, 팔레스타인인민전선 대원들, 민간인, 무장한 과격 분자 등 온갖 사람들이 밀고 들어갔다. 하마스는 더는 작전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하마스 자신도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좇아야 하는 처지임을 보여 준다.

하마스를 팔레스타인인들과 분리시키는 견해에는 하마스의 이번 기습이 괜한 보복을 불러와 재앙을 몰고 왔다는 우려가 깔려 있기도 하다.

물론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 지구에 야만적인 폭력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저항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마스의 공격이 낳은 정치적 효과를 봐야 한다. “아랍과 이슬람 도시의 ... 거리와 광장으로 나오라”는 하마스의 호소에 수많은 중동 대중이 호응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중동 대중은 하마스의 기습을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선 투쟁의 일부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반서방 정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한 아랍인들에게서도 느낄 수 있다.

하마스를 먼저 지지해야 건설적 비판 자격이 있다

일부 좌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하마스의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이유로 하마스와는 선을 긋는다. 특히, 하마스가 비민주적이고 보수적인 편견과 종교적 편협함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런 비판은 이슬람과 이슬람주의에 관한 잘못된 편견에 기초한 것일 때가 흔하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하마스가 여러 편견과 전략적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마스는 혁명적 좌파 정당 아니다.) [관련 기사: 이번 호에 실린 ‘이스라엘의 잔혹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를 보시오]

그러나 팔레스타인 운동이 하마스 당의 그런 약점들을 극복하고 더욱 급진적인 전망과 전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전적 비판이 가능하려면 일단 그 투쟁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 10월 서울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현실에서 그들이 벌이는 투쟁을 일단 무조건 지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전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실의 투쟁을 가르치려 드는 종파적 태도는 오히려 그런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

무조건 지지한다는 것이 무비판적 지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판은 운동을 건설하는 데에 도움 되는 건설적·생산적인 것이어야 하고 또 동지적인 것이어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인력·예산 대거 감축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 ★ 공교육 멈춤의 날 주도 교사 처벌 말라
- ★ 이재명의 민주당 내 보수파 꺼안기는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짓
- ★ 이태원 참사 1년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 ★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반년 뿌리 깊은 건설 부패, 정부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
- ★ 독일 혁명 1918~1923년 ② 1923년 독일공산당 결정적 기회를 놓치다



이라크 전쟁의 학살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

미국 해병대 중장 제임스 글린이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다고 **소피 스콰이어**는 지적한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학살을 주도했던 군사 고문들을 이스라엘에 파견한다. 서방 제국주의의 시가전 경험과 적을 쳐부수는 요령을 전수하기 위함이다.

이 장교들 중에는 해병대 중장 제임스 글린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라크 팔루자 전투의 일등 공신이었다.

2004년 11월 미국은 팔루자에 막대한 양의 백린탄을 투하해 수많은 이라크인 전사와 민간인을 죽였다. 백린탄에 맞으면 끔찍하게 불타 죽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처음에 미국 정부는 전쟁 범죄에 속하는 이 행위에 대한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한 해 뒤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

팔루자 전투에 참전한 한 전직 미군 병사는 다큐멘터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팔루자에 백린탄을 사용할 것이니 주의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백린은 살점부터 뼈까지 차례로 녹여 버리면서 몸을 불태웁니다. 저는 불타 죽은 여성과 아이들을 봤습니다. 반

경 150미터 내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에 팔루자 주민들의 시체가 찍혀 있었는데 몇몇은 침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였다. 그들의 옷은 그대로였지만 백린탄에 의해 피부가 녹아 버리거나 불에 탄 모습이었다.

“흔들고 구워라”

공격에 참여한 해병대와 동행한 캘리포니아의 <노스 카운티 타임스> 종군 기자도 백린탄과 고성능 폭약을 혼합한 폭탄을 병사들이 건물에 투척했다고 보도했다. 그 폭탄은 “흔들고 구워라”라는 역겨운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런 학살과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이와 비슷한 운명에 처할까 봐 두려워한다.

2차 팔루자 전투는 1968년 베트남 전쟁의 ‘후에 전투’ 이후 미군이 치렀던 가장 큰 시가전이었다. 역겹게도 미국은 글린을 파견하는 이유가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줄일 방법을 조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미 해병대

2004년 이라크 팔루자 학살을 지휘했고, 이제 가자로 가는 제임스 글린

가자 지구 봉쇄로 아기들이 죽을 것

유엔은 이스라엘의 봉쇄로 연료가 동나면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생아 최소 120명의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말한다.

“신생아 120명이 인큐베이터에 있고, 그중 70명은 기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지난주 유니세프 대변인 조너선 크릭이 말했다.

이스라엘이 구호 수송대의 가자 지구 진입을 허락했다는 소식은 엉터리다. 지난주 주말 동안 트럭 총 34대가 구호 물품을 싣고 가자 지구에 들어갔다. 최근의 봉쇄 전에 가자 지구로 들어

가던 일일 평균 수송량의 4퍼센트에 불과한 양이다.

구호 물품에는 연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연료가 없으면 물을 담수화 할 수 없다. 또 연료가 없으면 빵도 만들 수 없고 병원도 운영할 수 없다.

“(구호 물품 중) 북부 지역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자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구호 작업반원 마흐무드 살라비가 AP통신에 한 말이다.

출처 Socialist Worker, 'US sends butcher of Iraq to help Israel' (2023. 10. 24) / 번역 이진화

30분 내로 집을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 나크바2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의 인구 밀집지인 알자흐라 타워를 급습한 것은 그간 인종 청소와 살인을 자행한 전형적이고, 전혀 이례적일 것 없는 방식이었다.

지난주 목요일 공동주택 25곳의 주민들은 휴대전화로 이스라엘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10분 뒤 소형 무인기 폭격이 벌어졌다. 다시 20분이 지나자 F-16 전투기들이 거대한 폭발과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건물을 붕괴시켰다.

“제가 꿈꿔 왔고 이랬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제 꿈, 아내와 아이들과의 추억, 사랑과 안전의 향기,

이 모든 것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 알리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 건물에 살고 있던 무스타파 다르위시는 이렇게 말했다. “알자흐라 도시는 먼지더미가 됐습니다. 국제 사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말로도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냈을 때(나크바) 자신의 테러 행위를 대부분 은폐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제2의 나크바를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고, 서방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비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